

제 목	안전교육은 생명교육
<p>어린이집 현장 경력 19년차 교사이다. 19년차면 겪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경력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교사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형태의 안전사고를 경험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출근 후, 빈 교실에 앉아 그 날을 떠올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기를.” 지금부터 안전교육이 생명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다.</p> <p>1세 신입아이가 입소를 했다. 어머님께서 아이의 낮가림이 심하고, 외동이기 때문에 입소 전 상담 때부터 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다. 적응기간 중 아이가 많이 울고, 어머님의 육아휴직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많이 울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하며 다소 강한 어투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시간은 약이라고 했던가. 아이는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엄마와의 짧은 헤어짐을 연습하고 있었다.</p> <p>내 마음과 달리 유난히 화창한 월요일이었다. 신입 아이가 온 지 이 주차가 되던 날. 그 날의 오전 간식은 사과였다. 아이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나가려고 하셨다. 어머님이 가시면 사과를 먹던 아이가 울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님께 “어머니, 하나가 사과를 다 먹으면 인사 후 나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님께서 나가시려다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자리에 앉으셨다. 잠시 후, 아이가 마지막 사과를 입에 넣고 포크를 내려놓자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웬지 위험한 예감이 들어 어머님께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고 할 때였다.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엄마를 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p> <p>바로 그 순간, 아이가 목을 잡고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더니 입술 색이 파래졌다. 아이의 기도에 아직 삼키지 못한 사과가 걸린 것이다. 어머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등을 두드렸지만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무척 괴로워했다. 정말 아주 짧은 찰나! 번쩍하며 매해 받는 종사자 안전교육이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침은 유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를 낚아채다시피 데려와 내 허벅지에 기대게 하여 아이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자세를 잡았다. 아이의 얼굴 중 광대뼈를 받쳐준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1초에 한 번씩 다섯 번을 손꿈치로 아이 어깨뼈 사이의 등을 두드렸다. 허공에 울리는 내 목소리는 핸드폰 진동처럼 떨리고, 심장은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지만, 숫자를 세며 사과가 나오길 바랐다.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p>	

다. 사과 조각을 본 순간 내 마음속 긴장감도 아이가 뺨은 사과처럼 푹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되뇌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이며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아이는 놀라서 울고 있는 것 외에 숨 쉬는 것도, 얼굴 혈색도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리고 놀라셨을 어머님께서도 안정하실 수 있도록 낮고 차분한 음성으로 “어머님, 하니를 안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아이를 안으시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 하니는 근처 소아과에서 진료 후,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 날 이후, 우리 모두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어머님께서도 교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신뢰를 보이셨고, 아이는 어머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츰 적응해 갔다. 하니의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도 입안에 음식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생기셨다고 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도 없다는 말이다.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응급처치방법을 키즈노트를 통하여 가정과 공유하고 있다. 원아들에게는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교육을 바탕으로 교사들과 월 1회 다양한 상황에서의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그리고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열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다양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교사들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을 때면 더욱 열심히 듣는 날 발견하게 된다. ‘목에 걸렸던 사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의식이 없었더라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며 더 많은 위험 상황들이 스쳐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신입 선생님들에게 말한다. 그 날 일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 받는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명교육이라는 것을 말이다.